

K리거 주민규·이승우·정호연...A대표팀 뽑힐까



황선홍 감독

황선홍 감독, 소집 명단 발표 앞두고 광주·수원·울산 등 K리그 관람 황희조·황희찬 등 평가전 출전 불투명...공격·수비수 '옥석가리기' 나서

지난 시즌 K리그 득점왕 주민규(울산)는 황선홍 감독의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이 임시 소방수로 투입된 한국 축구대표팀은 이달 21일과 26일 태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2연전을 치른다. 오는 11일 서울 중로구 축구회관에서 A대표팀 소집 명단을 발표하는 황 감독에게 '고민의 시간'이 왔다.

주요 해외에 머물면서 K리거를 발굴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은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과 달리, 황 감독은 마이클 김 수석코치, 조용형-정조국 코치, 김일진 골키퍼 코치, 이재홍 피지컬 코치 등을 코치진으로 꾸린 직후 K리그 출장에 나섰다. 황 감독은 지난 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대전 경기를 관망했고, 이튿날엔 광주축구전용경기장을 찾아 광주와 서울의 경기를 지켜봤다. 황선홍 감독과 코치진은 인천-수원FC전, 울산과 전북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8강전 등도 관전하고 국내파 점검에 총력을 기울였다.

황 감독은 이번 주말 열리는 K리그 경기까지 살펴본 뒤 최종 명단을 작성할 계획이다. 클린스만 전 감독의 외면을 받았던 K리거가 얼마나 승선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축구팬은 울산의 주민규, 수원의 이승우, 광주의 정호연 등의 발탁을 바라고 있다.

황 감독은 울산과 전북의 ACL 경기 현장을 찾아 스트라이커 주민규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주민규는 울리 슈틸리케(독일) 전 감독 시절인 2015년 동아시아컵 예비 명단(50명)에 이름을 올렸지만, 최종 명단에 뽑히지 않았고, 이후 한 차례도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희조(알라니아스포르)가 국가대표에서 잠정 배제된 상황에서 2023 AFC 아시안컵에서 스트라이커 부재 문제는 계속 지적됐다.

황희찬(울버햄프턴)마저 햄스트링을 다쳐 3월 평가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팬들은 확실한 골 결정력이 무기인 주민규에게 기회가 주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수원의 미드필더 이승우도 마찬가지다. 신태용 감독의 부름을 받아 2018년 러시아 월드컵도 뛴었던 이승우는 밴두 감독 부임 이후 소집 명단에는 들었으나 점차 출전 기회가 줄더니 2019년 이후로는 대표팀에서 외면받았다.

2022년 K리그 수원에 입단한 이승우와 주민규는 K리그에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유이한' 선수다.

지난 2일 인천과의 경기에서는 정해성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과 마이클 김 수석코치 등이 보는 앞에서 후반 10분 교체로 투입돼 공격 활약을 펼치기도 했고, 후반 추가 시간에는 페널티킥으로 울 시즌 마수결이포를 넣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황선홍호의 금메달을 수확했던 젊은 선수들이 황선홍 감독의 A대표팀에도 발탁될 것인지도 눈길을 끈다.



지난 2일 광주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와 FC서울의 경기. 서울 링크스(왼쪽)가 후반전에 출전해 광주 정호연과 볼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광주 중원의 핵심인 2000년생 영건 정호연과 2002년생 대구FC 수비수 황재원의 최근 활약이 좋다.

마침 A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황선홍 감독은 광주와 서울의 개막전을 찾았고, 기량이 만개한 정호연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이 경기에서 정호연은 서울의 압박을 풀어내며

공격 전개의 중심으로 활약했고, 서울 미드필더진의 패스를 끊어내며 2-0 승리의 밑바탕을 다졌다. 수비수 황재원도 대표팀의 미래를 책임질 우측 풀백 자원으로 언급된다.

왕성한 활동량과 날카로운 크로스와 돌파가 장점인 황재원이 김태환의 세대교체 자원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다. /연합뉴스

이강인 UCL 첫 도움+음바페 결승골...PSG 8강행

레알 소시에다드에 2-1 승리

이강인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생애 첫 도움으로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PSG)에 8강행 티켓을 배달했다.

이강인은 6일 스페인 산세바스티안의 아노에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2023-2024시즌 UCL 16강 2차전 원정 경기에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돼 팀이 1-0으로 앞서던 후반 11분 킬리안 음바페의 골을 도왔다.

PSG는 2-1로 승리했고, 1·2차전 합계로도 4-1 완승을 거둬 3시즌 만에 이 대회 8강에 올랐다. PSG의 다음 상대는 15일 진행되는 8강 대전 추첨에서 결정된다.

지난해 10월 26일 AC밀란과 조별리그 경기에서 UCL 데뷔골을 넣은 이강인은 이번에는 이 대회 데뷔 도움을 기록했다.

울 초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손흥민(토트넘)과 충돌해 팬들을 크게 실망시킨, 이른바 '타구게이트' 이후 이강인이 소속팀에서 처음으로 열린 공격포인트이기도 하다.

올 시즌 이강인의 누적 공격포인트는 리그 1골 2도움을 포함해 공식전 3골 3도움으로 늘어났다.

이날 선제골까지 책임져 멀티골을 폭발한 음바페는 대회 6골을 기록하며 득점 랭킹에서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과 공동 1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이강인이 음바페의 UCL 득점왕 레이스에 힘을 보탠 셈이다.

이날 레알 소시에다드에서는 이강인의 절친이자 라이벌인 선수 구보 다케후사가 공격을 지휘했다. 구보가 풀타임을 소화한 가운데 이강인이 후반전 내내 그라운드를 누벼 UCL 무대에서 '한일전'이 성사됐다.



이강인이 6일 스페인 산세바스티안의 아노에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 슈팅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공격포인트로 PSG의 승리를 거둔 이강인이 소 득 없이 경기를 끝낸 구보에 완승했다.

전반 15분 우스만 데벨레의 패스를 받은 음바페가 골 지역 왼쪽에서 수비수 2명을 제치고 날린 오른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았다. 이강인을 교체 투입한 PSG는 후반 11분 이강인과 음바페의 합작 결승골로 사실상 180분 승부에 췌기를

박았다.

이강인은 레알 소시에다드의 뒷공간을 찌르는 침투 패스를 시도했고, 왼쪽의 음바페는 문전으로 치고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득점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후반 44분 미켈 메리노의 골로 한 점을 만회했으나 승부를 뒤집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이었다. /연합뉴스

“파리행 티켓 잡아라”...양궁 국가대표 선발전 돌입

최미선·안산·김민서 등 광주·전남 선수 9명 출전



양궁 국가대표 3차 선발전에 나서는 광주대표 선수들이 6일 국제양궁장에서 훈련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서, 최미선, 안산, 오예진, 이승운.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광주·전남 공사들이 2024 파리 올림픽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승부를 펼친다

2024 양궁 국가대표 3차 선발전이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다.

대회에는 2차 선발전을 통과한 남녀 각 20명과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했던 남녀 각 4명 등 총 48명이 참가한다.

이번에 출전하는 광주·전남 선수는 총 9명으로, 이는 3차 선발전 사상 최다다.

여자 양궁에는 최미선·안산·김민서(이상 광주은행 텐텐양궁단), 오예진(광주여대)이 출전한다. 이들은 기보배, 최미선, 안산 등 올림픽 3회 연속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양궁 명문' 광주여대 선·후배 사이다.

오예진과 김민서는 지난해 10-11월에 열린 2차 선발전을 통과했다. 오예진은 2023세계양궁 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하며 차세대 양궁 스타로 주목받았다.

최미선과 안산은 아시안선수권대회에 출전하면

서 이번 평가전 자격을 얻었다.

이들은 지난해 열린 2023 아시아양궁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한국 여자 양궁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3장으로 늘렸다.

남자 양궁에는 이승운(남구청)이 올림픽 재도전에 나선다.

이승운은 2023 국가대표이자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광주·전남 남자 선수 중 유일하게 2차 선발전을 통과했다. 그는 지난달 4일 열린 제26회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 실내대회에서 개인전 1위에도 올랐다.

양궁 기대주들의 성장이 돋보이는 전남에서는 이은경·남수현(이상 순천시청), 서보은(순천대), 조한이(순천여고)가 출전한다. 조한이는 여고생으로 유일하게 2차 선발전을 통과했다.

6일간 치러지는 3차 선발전을 통해서 남녀 각 8명의 국가 대표가 선발된다. 이후 최종 순위 평가전을 치러 상위 각 3명이 파리올림픽 출전 티켓을 거머쥐게 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파묘
2관	둔: 파트2
3관	패스트 라이브즈, 벅커 게임
4관	파묘, 생츄어리 2 : 퀵카가 너무해
5관	웍카
6관	파묘, 예수는 역사다
9관	둔: 파트2, 가여운 것들, [위드키즈]브레드 데이발소: 셉템 인 베이커리타운
7관	씨네카를
8관	씨네카를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3월

매주 토-일 17:00

광주공연마루

광주상설공연

2024년 3월

일시 : 2024-03-02(토) ~ 2024-03-31(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유우재 개인전 <이상한 풍경>

일시 : 2024-02-23(금) ~ 2024-03-24(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